

# 한국교회의 1907년 대부흥의 영향

조은식\*

- I. 들어가는 말
- II. 대부흥의 배경
- III. 대부흥의 원인
- IV. 대부흥의 시작
- V. 부흥의 긍정적 결과
- VI. 부흥의 부정적 결과
- VII. 나가는 말

## I. 들어가는 말

1903년부터 1907년 사이에 기독교의 복음이 한국에 뿌리를 내려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1903년에 시작된 부흥운동이 1907년 평양에서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 1907년의 대부흥은 “한국교회 100년 전통에서 부흥운동의 가장 근본적인 모델”이다.<sup>1)</sup> 한국교회에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그 당시의 모습을 조명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더구나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지금 한국교회가 갱신되고 다시 부흥하도록 1907년 대부흥 사건을 재검토하여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907년 대부흥의 역사·정치적 배경, 원인, 내용, 긍정적 및 부정적 결과들과 그런 것들이 오늘까지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려고 한다.<sup>2)</sup>

\* 숭실대 인문대학 교양학부 조교수·교목실장

1) 오성춘,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의의에 관한 연구를 논찬함,” <제2회 소망신학포럼> (장로회신학대학교, 2005년 4월20일), 1.

2) 1907년 평양 대부흥은 학자에 따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평가한다. 백낙준

## II. 대부흥의 배경

한국교회는 1880년대의 선교 초기 이후 한민족의 정치적 현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이것은 한국에 복음의 사회적 이상을 실현하려는 애국심과 민족애, 그리고 선교의식의 발로였다.<sup>3)</sup> 기독교는 한민족에게 자유, 인권, 평등과 민주주의 사상을 깨우쳐 주었고, 초기 기독교 신자들은 그들의 기독교 신앙을 정치·사회적 차원에 적용하고 실천하였다. 이런 의식의 혁명이 필연적인 사회·정치적 변혁을 가져왔던 것이다.

한국교회의 1907년 대부흥은 1900년대 초 세계열강의 각축장이 된 아시아의 한반도라고 하는 지정학적 요소와, 이에 따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처한 입장이 그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감리교 왓슨(Alfred W. Wasson)은 한국교회가 정치적·사회적 요인에 의해 성장했다고 보고,<sup>4)</sup> 장로교의 셰어러(Roy E. Shearer)는 한국교회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성장했다고 본다.<sup>5)</sup> 그리고 백낙준은 한국교회의 부흥이 역사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sup>6)</sup> 무엇보다 민족의 수난이 1907년 대부흥의 주된 배경이었다. 1900년 전후의 사회적 상황은 암울하고 혼란스러웠다. 대내적으로는 조선정부에 항거하는 민중의 저항과 대외적으로 서구 열강의 침략과 이권쟁탈이 끊임없이 전개되었다. 1882년의 임오군란, 1884년의 갑신정변, 1894년의 동학혁명이 내적 저항과 혼란을 가져왔고, 1894년부터 1895년까지의 중일전쟁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였으며, 1895

---

은 선교사적(宣敎史的) 입장에서, 민경배는 민족교회론의 시각에서, 박순경은 제국주의와의 관련 여부에 대해 비판적 시각으로, 이덕주는 토착교회 형성과 관련된 입장에서 1907년 대부흥을 연구하였다. George. L. Paik,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 in Korea 1832-1910* (Pyeng Yang, Korea: Union Christian College Press, 1929);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2); 박순경, 『민족통일과 기독교』 (서울: 한길사, 1986); 이덕주, 『한국 토착교회 형성사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0).

3) 이장식, “한국 정치현실과 교회,” 『교회와 국가』,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편 (서울: 한기문 출판사, 1988), 248.

4) Alfred W. Wasson, *Church Growth in Korea* (New York: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1934).

5) Roy E. Shearer, *Wildfire: Church Growth in Korea*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6).

6) Paik,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 in Korea 1832-1910*.

년의 을미사변, 1904년부터 1905년까지의 러일전쟁의 영향아래 한국인들은 위기감에 휩싸이게 되었다.<sup>7)</sup> 러일전쟁은 한국과 극동 아시아 전체의 정치적 상황을 변화시켰다. 이 시기의 정치적 상황은 암울하고 절망적이었다. 더구나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결속시켜 줄 종교가 없는 일종의 종교적 공백상태 또는 종교 진공상태가 나타났다.<sup>8)</sup> 이러한 상황가운데서 우리는 1897년부터 1906년까지 9년 동안의 기간에 발생한 한국교회의 발전을 목격하게 된다. 이 기간은 정치적으로 러시아와 일본이 한국의 통치문제에 대해 대립하고 있던 때였다. 이러한 정치적 대립은 선교사역에 영향을 미쳤다.<sup>9)</sup>

일본이 정치적으로 조선에 간여하려고 할 때, 한국(조선)정부는 미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것은 1882년 한미 우호조약 이후 미국과 우호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때 미국은 정치적으로 일본과 가까운 관계였다. 1900년에 테오도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미국 부통령은 일본이 한국을 다스리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다. 루즈벨트는 대통령이 된 후 일본이 만주와 한국에서 러시아의 세력을 견제하는 동안, 미국은 일본을 지원하고 일본의 한국합방을 허락해야 한다고 발언했다.<sup>10)</sup> 1905년에 미국과 일본 사이에 태프트-가츠라(Taft-Katsura) 비밀협정이 체결되었고, 미국은 자신들이 필리핀을 점령하고,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점령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1882년 한미 우호조약을 위반한 미국 정부의 배반이었다. 일본은 러시아를 패배시키고, 1905년에 한국을 일본의 세력 아래에 가두어 버렸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포츠머드(portsmouth)조

7) 한국인들은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중국을 이긴 것에 대해 놀랐다. 그 이유를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파악하고 서양문명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기독교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된 계기라고 보았다. Robert E. Speer, *Report on the Mission in Korea of the Presbyterian Board of Foreign Missions*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1897), 7, 임희국, “신앙각성운동을 통한 갱신과 부흥, 토착 교회의 형성 --1907년 평양 대각성운동을 중심으로,” <제2회 소망신학포럼> (장로회신학대학교, 2005년 4월20일), 12에서 재인용. 아울러 러일전쟁 후에는 교회가 안전한 피난처라는 의식이 생겼다고 본다, 위의 책.

8) 이광순, 『한국교회의 성장과 저성장』 (서울: 미션아카데미, 2005), 57, 59.

9) Paik,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 in Korea 1832-1910*, 252-53, 258.

10) 민중사 간, 『역사와 기독교: 한국민족 통일 운동의 현실』 (서울: 기독교정의발전연구소, vol. 8, 1984), 22.

약을 통해 한국의 지배권을 인정받았다.<sup>11)</sup> 한국은 한국인 자신들의 소망과는 상관없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것이다. 마침내 1910년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합병했다.

### III. 대부흥의 원인

‘부흥’은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성서적으로는 생명을 회복한다는 뜻이다. 한국의 1907년 부흥운동을 대부흥이라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흥운동은 개인의 회개를 불러일으켰고, 그것이 변화된 행동으로 나타나 개인의 윤리적 및 영적 삶이 개선되었다. 또 그것은 교회의 부흥에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계몽하고 각성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 부흥운동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기술된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인도와 웨일즈의 종교적 부흥과 더불어 세계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삼대 부흥운동으로 인정되었다.<sup>12)</sup> 따라서 단순한 부흥운동이 아닌 ‘대부흥’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1907년 대부흥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 원인에 대한 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은 없지만, 영적·정치적·선교 전략적인 범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이 부흥의 원인을 전통적 샤머니즘과 기독교 성령운동의 복합적 현상이라고 보기도 한다.<sup>13)</sup> 다른 이들은 이 부흥

11) 한국기독교사연구회 편, 『한국 기독교의 역사』 I (서울: 기독교문사, 1989), 324.

12) 영국 웨일즈 지역의 부흥운동은 1904년 절정에 이르렀다. 웨일즈의 부흥운동과 1907년 한국교회 부흥운동을 비교한 논문으로, David A. Kerr, “영국 웨일즈 지역 신앙각성운동,” 『20세기 개신교 신앙부흥과 평양 대각성운동』 <제5회 국제학술대회> (장로회신학대학교, 2005년 5월25일)를 참조하라; 인도의 부흥운동은 1905-07년에 있었다. 김창환, “20세기 초반 영국령 인도의 신앙각성운동: ‘은혜의 소나기’: 21세기 초 인도 카시아 고원과 묵티 선교회의 부흥운동,” 『20세기 개신교 신앙부흥과 평양 대각성운동』. <제5회 국제학술대회> (장로회신학대학교, 2005년 5월26일) 참조하라;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1906-09년에 있었던 부흥운동은 오순절 운동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아주사 부흥운동과 1907년 한국교회 부흥운동을 비교한 논문으로 옥성득, “1906-1909년 아주사(LA) 부흥 운동: 그 특성과 한국 대부흥운동과의 비교,” 『20세기 개신교 신앙부흥과 평양 대각성운동』 <제5회 국제학술대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5년 5월26일) 참조하라.

13) 이종성, “선교 100주년과 한국교회,” 『행동하는 크리스찬』 (1984년 가을호), 2.

의 원인이 한국 기독교인들의 경건에서 기인한다고 보는데, 길선주 장로가 평양에서 처음 시작한 새벽 기도회의 뜨거운 열정이 부흥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sup>14)</sup>

어떤 이들은 장로교에 의한 자치·자급·자전이라 불리는 삼자 또는 네비우스 방법의 채택이 이 부흥운동에 자극을 주었다고 보기도 한다.<sup>15)</sup> 특히 이것은 성경공부를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신실한 성경공부가 원인일 수도 있다. 성경 공부가 시골이나 도시나 할 것 없이 전역에서 있었고, 그것이 교회 생활에 동기가 되었다.<sup>16)</sup> 이것이 한국교회의 첫 유산이었다.<sup>17)</sup> 따라서 어떤 이들은 성경공부가 이 부흥의 실질적 기초였다고 믿는다.

이 부흥의 시기는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불안한 때였다. 마펏(Moffett)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그 당시 한국의 정치·사회적 체제의 붕괴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의 군사적 영향이 중국의 영향을 대체하였고, 민비가 살해되었다. 그리고 500년 역사의 조선왕조가 붕괴되고,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기존의 기반이 해체되면서 한국의 옛 종교들과 유교와 불교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원시 토착 신앙은 특권을 잃기 시작했다.<sup>18)</sup>

14)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개정판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252.

15) Samuel Hugh Moffett, *The Christians of Korea* (New York: Friendship Press, 1962), "Missions to Korea: A Brief Summary," in *Korean American Ministry*, ed. Sang Hyun Lee (Princeton, NJ: The Consulting Committee on Korean American Ministry, The Program Agency, Presbyterian Church (U.S.A.), 1987), 42. 네비우스 방법의 성공이 한국교회 토착화의 주춧돌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백락준의 견해와, 경제적 자립 원리의 강조에 반해 자치 원리는 덜 실천되었고 선교사들의 지도권에 더 의존적이었으므로 한국교회는 서양교회의 연장이었을 뿐이라고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박순경의 견해가 있다. 마펏은 네비우스 방법이 유일하게 한국에서 성공했다고 지적한다. Paik,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 in Korea 1832-1910*, 152; 박순경, 『민족통일과 기독교』, 96-97; Moffett, *The Christians of Korea*, 60-61.

16) Shearer, *Wildfire: Church Growth in Korea*, 54-55.

17) Kyung Bae Min,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n History," in *Korean American Ministry*, ed. Sang Hyun Lee (Princeton, NJ: The Consulting Committee on Korean American Ministry, The Program Agency, Presbyterian Church (U.S.A.), 1987), 20.

18) Moffett, "Missions to Korea: A Brief Summary," 41.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외의 방법이 없음을 이 부흥의 영향과 민족의 불운에 대한 자기반성을 통하여 인정하였던 것이다.

한국인들의 마음은 심히 동요되었고, 민족 상황의 변화에 의해 이런 상태가 확대되었다. 한국인들은 대내외적 위기의식으로부터 안정감을 찾기 원했고, 어떤 종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교회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민족의 비운으로 충격을 받은 교회는 자각을 촉구하게 되었다. 민족의 불안이 사람들로 하여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찾게 하였던 것이다.

이 부흥의 다른 원인은 민족운동의 조짐에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그 당시 젊은 지식인들이 조국의 운명에 대한 불안으로 서양 종교를 통해 국난을 해결하려고 교회에 모여들었다는 것이다. 서양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한국인들은 그들 고유문화의 쇠퇴를 깨닫게 되었고, 일반인들도 새로운 종교에의 높은 기대로 교회에 모이게 되었다.<sup>19)</sup> 마펏은 이것을 “어떤 이들은 개인적 안락보다 국가 재건의 소망 때문에 새로운 신앙을 찾았다”<sup>20)</sup>고 지적한다. 그렇다! 한국 기독교는 민족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제국주의 정부가 한국교회를 박해하였던 것이다. 한국의 기독교는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한국 민족주의의 기초였다.

한국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은 1890년 이후 사회적·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으나 상황은 급속히 바뀌었다. 선교사들은 부흥의 물결을 타고 한국을 아시아의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교회를 비정치적 교회로 만들려는 선교사들의 욕구가 이 계획 뒤에 숨어 있었다. 이런 의도는 1901년의 글 가운데 나타난다. 1901년 선교사들은 “교회에서 정치공론 못할 것이요”라고 결의하였다.<sup>21)</sup>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1907년의 부흥을 지도하고 결실하게 한 원칙은 한국교회의 “비정치화”였던 것이다. 선교사들은 정치에 관여하는 목사나 신자들을 불신하였다.<sup>22)</sup> 심지어 애국적 모임에 관계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그들의 교회 직

19) 이종성, “선교 100주년과 한국교회,” 2.

20) Moffett, “Missions to Korea: A Brief Summary,” 41.

21) Min,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n History,” 19.

분에서 박탈하기로 결의하기도 했다.<sup>23)</sup>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이 일본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것을 엄금하는 자세를 고수했다. 그들은 한국인들에게 기독교 국가를 이룩함으로 일본에 도덕적으로만 저항할 것과 인내로 일본의 압박을 극복하라고 가르쳤다.<sup>24)</sup> 이것은 선교사들의 신학적 배경과, 친일적 관계에 있는 그들의 정부로부터의 압력과, 일본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복잡한 상황 때문이었다. 미국정부의 입장에서 미국의 복음적 교단 출신 선교사들이 일본 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갖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은 정치로부터 교회를 분리시켰다. 이런 점에서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비쳐졌던 것이다. 그들은 겉으로는 한국교회와 한국 기독교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정교분리를 정당화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들의 선교지를 일본정부에게 빼앗기지 않고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선교사들의 말과 글과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감리교 해리스(M. C. Harris)감독은 1907년 5월호 Japan Times에서 선교사들은 한국에 대한 이토의 정책에 신실하게 동의한다고 썼다.<sup>25)</sup> 복장로교의 스미스(Walter Smith)는 1908년 1월 30일에 브라운(Arthur Brown)에게 편지를 썼다. 스미스는 이 편지에서 해리스 감독의 정치적 상황을 설명했는데, 해리스 감독은 기독교회의 감독이기보다 일본정부의 앞잡이로 사료된다고 썼다.<sup>26)</sup> 이것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선교사들의 대표적인 태도였다. 감리교의 존스(G. H. Jones)는 그 당시(1907년) 한국인에게 필요한 것은 법의식과 권위예의 복종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인들이 일본에 복종하도록 설득하였다.<sup>27)</sup> 쿤스(Wade Koons)는 1908년 2월4일에 선교사들이 한국인들에게 일본에게 복종할 것을 충고했다고 고백하였다: “우리

22)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1982), 256.

23) 민경배, 『한국민족교회 형성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4), 43.

24)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1982), 257.

25) 민경배, 『한국민족교회 형성사』 (1974), 49.

26) Korean Information Papers, Foreign Mission Board, Presbyterian Church, New York, Paik,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 in Korea 1832-1910*, 401에서 재인용.

27) 민경배, 『한국민족교회 형성사』 (1974), 49.

는 일본인들을 반대하지 않았다.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그들의 의무는 일본에 복종하는 것이고 달가운 마음으로 그렇게 할 것과 독립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납득시켰다.”<sup>28)</sup>

대부흥에 대하여 백낙준은 “이 부흥은 비기독교인들을 개종시키려는 운동이 아니라 기독교 신자들의 영적 소생을 위한 것이었다.”<sup>29)</sup>라고 지적했다. 셰어러(Shearer)는 “부흥에 대한 정의를 하자면 정결과 재헌신을 위한 성령의 역사이다. 한국에서 성령은 대형집회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용서하여 그들이 소생하게 하였다”라고 지적했다.<sup>30)</sup> 이장식도 대부흥운동은 “이미 믿는 신자들의 신앙의 강화와 구원의 내증과 윤리적 결단과 성령의 경험을 얻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대중집회 보다는 개인 전도의 방법으로 얻은 개종자의 수가 더 많다.”고 말하였다.<sup>31)</sup> 다시 말해, 부흥운동은 실제적으로 비신자들이나 교인수 증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신자들의 영적 소생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부흥의 감춰진 동기였다. 이 부흥은 1905년 한국교회의 정화작업으로 실제화 되었다.

이 부흥운동은 “성경적 신앙”을 강조하였다. 대대적인 부흥회에서 원죄, 용서, 은혜, 구원의 기쁨”에 대한 교리가 강조되었고 소박한 신앙으로의 회귀를 통하여 성경공부가 크게 강조되었다.<sup>32)</sup> 부흥의 불길은 고린도전서 12장과 요한일서와 관계되어 있다. 이 운동은 교회의 공동체적인 면을 강조하는 성경을 읽도록 장려하였다. 민경배는 “이것은 정치적 간여를 반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교회생활의 영적인 정립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sup>33)</sup> 고 지적한다. 그 당시 “신앙 내연 사회 외

28) Korean Information Papers, Foreign Mission Board, Presbyterian Church, New York, Paik,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 in Korea 1832-1910*, 401에서 재인용.

29) Paik,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 in Korea 1832-1910*, 402. 그런 의미에서 1907년 대부흥을 대부흥운동이라기 보다 대각성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임희국, “신앙각성운동을 통한 갱신과 부흥, 토착 교회의 형성--1907년 평양 대각성운동을 중심으로,” 19.

30) Shearer, *Wildfire: Church Growth in Korea*, 56-57.

31) 이장식, 『한국교회의 어제와 오늘』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7), 185.

32) Min,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n History,” 19.

33) 위의 책, 19-20.



연”의 원칙이 성립되고 체계적으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민족적 비운 가운데 한국교회들의 정치적 간여에 의해 선교사들은 벽에 부딪히고 깊은 실의에 빠졌다. 캐나다 출신 감리교 의사 하디(R. A. Hardie)는 이런 상황 아래 원산에서 기도를 했고, 오직 성령의 세례만이 이런 어려운 상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선교사들은 하디를 초청하여 집회를 인도하게 하였다. 이것이 1907년 대부흥의 또 다른 원인이 되었다.<sup>34)</sup> 이후의 지면은 대부흥의 원인들을 이해하며 대부흥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는데 할애하겠다.

#### IV. 대부흥의 시작

1907년 대부흥은 어느 특정 교단의 사경회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와 선교사들이 연합하여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져왔다. 영적 부흥이 1903년부터 1907년 사이에 발생했다. 1903년에 부흥운동이 시작되었고, 1907년 평양에서의 대부흥이 절정을 이루었고, 이것이 1909년 백만 구령운동으로 이어졌다.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한 가지 원인은 선교사들의 기도회와 성경공부에서 연유되었다. 이 부흥은 남감리교 선교부에서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전국의 교회에 퍼지게 되었다. 중국 선교사였던 화이트(M. C. White)가 1903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감리교 선교부의 선교사들은 원산에서 화이트 선교사와 기도회를 가졌었다. 의료사업과 복음 사업을 위해 1890년 캐나다 대학 선교회에서 파송되었다가 1898년 남감리교 선교부에 가입한 하디가 부흥회를 인도했다.<sup>35)</sup> 그의 새로운 복음 사역은 어려웠고, 실패감이 그를 압박했다. 하디는 3년 동안의 강원도에서의 선교 사역에 전혀 열매가 없었다고 그의 일기에 고백하고 있다.

1894년 중일전쟁이 일어났고, 서북지역의 주민들은 교회로 피신하여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했다. 1895년 이후 각 도에 선교기지가 설립되었

34)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1982), 258.

35) Wasson, *Church Growth in Korea*, 29; Allen D. Clark, *A History of the Church in Korea* (Seoul, Korea: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71), 159.

고, 교회들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 이것이 선교사들로 하여금 백인으로서의 우월감과 함께 자만심으로 가득 차게 하였다. 선교사들은 개인 주택과 화려한 가정용품과 심지어 피서지까지 갖게 되었다. 그때부터 선교사들의 겸허한 이미지가 사라지기 시작했다.<sup>36)</sup>

1904년 1월, 원산에서 선교사들 사이의 사경회가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선교사들의 연합기도회로 발전되었다. 이것은 창전교회에서 계속되었고, 그들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 장로교 랍(A. F. Robb)이 성령의 거대한 체험을 하였고, 그는 큰소리로 반복해서 기도를 했다. 전계은과 정춘수도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며 원산 지역의 부흥회를 인도했다. 전계은은 전도여행을 시작하였고, 정춘수는 성령의 은사를 선포했다.<sup>37)</sup>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은 평양에서도 계속되었다. 평양의 선교사들은 원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듣고 사경회를 갖기 원하고 있었다. 그들은 1906년 8월 사경회 인도를 위해 하디를 초청했다. 그때 뉴욕의 존슨(Howard Agnew Johnson)이 한국을 방문하여 인도와 웨일즈의 종교적 부흥을 전했다. 이 소식이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동일한 복을 받게 하는 힘이 되었다.<sup>38)</sup> 그리하여 평양의 기독교인들은 매일 한 시간씩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1907년에 평양에서 극치에 달하였다. 열흘 동안 평양에서 개최된 부흥회는 첫날 1천5백 명의 남자들이 모였고, 여자들을 위한 자리를 교회 바깥에 놓아야 했다.<sup>39)</sup> 민경배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떤 기독교인 여자들은 장사하러 가는 것처럼 그들의 침구와 옷과 식량을 갖고 왔고, 7-10일 동안의 부흥회에 참석하기 위해 30마일을 걸어오기도 하였다. 이런 부흥회들은 시골에서는 주로 겨울에 개최되었기 때문에 추위를 견디어야만 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부흥운동은 힘있게 성장하였다.<sup>40)</sup>

36) 『한국기독교의 역사』 I, 268-69.

37)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1982), 251; 김광수, 『기독교 성장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6), 160.

38) Paik,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 in Korea 1832-1910*, 355; Wasson, *Church Growth in Korea*, 52; Clark, *A History of the Church in Korea*, 159-60.

39) 김광수, 『기독교 성장사』, 161.

목사가 되기 전, 길선주 장로는 부흥회 준비를 위하여 새벽기도회를 인도했다. 그가 설교를 하면, 그의 형체는 마치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 같았다고 한다. 회개한 한국 기독교인들의 열기는 초대 기독교 회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의 불같았다.<sup>41)</sup> 1907년 1월12일 토요일, 평양에서 개최된 장로교 및 감리교 부흥회에서 방위량(W. N. Blair)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봉독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라고 설교했다. 그는 설교를 통해 죄가 무엇인지 깨우치려고 하였다. 설교 후 선교사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개입을 위해 기도했다.<sup>42)</sup>

부흥회는 1907년 1월 14일 월요일까지 계속되었다. 이길함(Graham Lee)은 부흥회에서 설교했고, 회중은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sup>43)</sup> 이 날이 평양 부흥회의 절정의 날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운동의 세세한 내용을 묘사하기는 불가능할지라도 부흥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가능하다. 영국의 윌리엄 세실경(Lord William Cecil)은 이 사건을 묘사하여 런던 타임즈(London Times)에 기고를 했다.

그가 [그레햄 리] “나의 아버지”라는 말을 하자마자, 밖으로부터 밀어닥치는 힘이 회중을 사로잡는 듯 하였다. 유럽인들은 이것을 공포의 현시라고 기술하였다. 참석자 거의 전부가 정신적 불안의 애절함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전에 각자의 죄가 그들의 생활을 정죄하는 듯하였다. 어떤 이들은 별떡 일어나 양심의 안정을 위해 자기의 죄를 알릴 기회를 얻어 진술하고, 어떤 이들은 침묵하였으나 괴로움을 어찌할 수 없어 그들의 과오를 고백하게 만드는 힘에 저항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주먹을 움켜쥐고 그들의 머리를 땅에 짚기도 하였다. 저녁 8시부터 아침 5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되었고, 선교사들은 어떤 이들의 엄청난 죄의 고백을 들으며 그런 기이한 일을 있게 하는 능력의 강림에 놀라기도 했다.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던 한국인 제자들의 정신적 괴로움에 동정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40) Min,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n History,” 20.

41) 『한국기독교의 역사』 I, 270.

42) cf. Clark, *A History of the Church in Korea*, 160-65.

43)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1982), 252; 김광수, 『기독교 성장사』, 162.

하였다. 많은 한국인들은 밤을 새웠는데, 어떤 이들은 기도하며, 어떤 이들은 심각한 영적 싸움을 하며 밤을 새웠다. 다음 날 선교사들은 폭풍이 지나고 거룩한 말씀의 위로의 교훈으로 지난밤의 상처를 싸매기를 소원하였으나, 같은 피로움과, 같은 죄의 고백이 여러 날 지속되었다.<sup>44)</sup>

방위량은 이것을 이렇게 기술했다

간단한 설교가 끝나고, 그레험 리는 사회를 보며 기도하자고 요청했다. 여러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리는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다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니 온 회중이 일제히 통성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 광경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다. 혼란도 없이 영과 혼의 굉장한 조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 없는 영혼들의 교제였다. 그 기도소리는 마치 거대한 폭포수 같았고, 거대한 기도의 물결이 하나님의 보좌로 거슬러 올라가는 듯 하였다.<sup>45)</sup>

부흥회 기간동안 회개의 역사는 개인의 참회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한 깊은 후회와 사회적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사죄하는 실천적인 회개운동의 결과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 성령체험을 계기로 재정적으로 손해를 입히거나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힌 사람들은 손해를 보상하고 사과하는 일이 생겼다.<sup>46)</sup>

부흥의 물결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학교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평양에는 숭실대학을 비롯하여 숭실, 승덕, 광성학교와 같은 기독교 2천5백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었다. 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부흥운동에 참여하면서 집단적인 전도운동을 전개하였다.<sup>47)</sup> 부흥의 불길은 1907년 3월 장로교 부인 사경회와 1907년 5월 장로회 신학교에까지 퍼지게 되었다.<sup>48)</sup>

44) Paik,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 in Korea 1832-1910*, 357-58.

45) W. N. Blair, *The Korean Pentecost* (New York, 1908), 45, Paik,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 in Korea 1832-1910*, 358에서 재인용.

46) 『한국기독교의 역사』 I, 271-72.

47) 위의 책, 272.

48) Paik,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 in Korea 1832-1910*, 359-60. 장로교 부인 사경회가 발전하여 여전도회 연합회 사경회가 되었다. 이광순, 『한국교회의 성장과 저성장』, 61.

하디와 게르딘(J. L. Gerdine)과 길선주 목사는 전국을 순회하며 부흥회를 인도했다.<sup>49)</sup> 각 부흥회는 성령의 커다란 체험을 하게 하는 비슷한 결과를 가져왔다. 1908년 한국과 일본의 감리교 감독 해리스는 볼티모어에서 개최된 미국 북감리교 4년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운동의 결과는 전적으로 훌륭하였다. 즉 교회의 신앙수준이 높아졌고, 미리 주의 있게 행해진 성경교육으로 광신은 거의 없었다.”<sup>50)</sup>

## V. 부흥의 긍정적 결과

이 부흥은 영적 운동이었으므로 당연히 영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첫째, 한국은 그 당시 정치적으로 연약했고, 경제적으로 빈곤했으며,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고, 종교적으로 미신적이었다. 이 부흥은 가난하고 불안한 사회에 새로운 희망의 빛을 주었다.

둘째, 도덕성의 향상에 기여하였다.<sup>51)</sup> 대부흥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죄의식을 불러일으켰고 이것은 바른 생활을 하도록 자극하였다. 그 당시 죄 개념이 분명하지 않았고 따라서 죄의식이 별로 없었던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죄 개념과 죄의식을 깨닫게 해 주었다. 그리하여 시대적 불안으로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던 한국인들에게 성결한 삶을 위한 각성과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 아울러 낡은 관습의 타파와 절약, 절연(節煙), 절주(節酒), 결혼과 장례의식의 변화가 왔다.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생활습관의 향상과 새로운 기독교 윤리의식이 형성된 것이다.<sup>52)</sup> 이런 면에서 대부흥운동은 교회 성장운동이라기 보다는 사경회를 통한 도덕적 각성운동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49) Paik,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 in Korea 1832-1910*, 360.

50) Journal of the 25th Delegated General conference of the Methodist Church in 1908, 861, 862, George. L. Paik,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 in Korea 1832-1910*, 361에서 재인용.

51) 『한국기독교의 역사』 I, 274.

52) 기독교인의 양심회복과 더불어 기독교인 됨의 의미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덕주, 『한국 토착교회 형성사 연구』, 135.

셋째, 죄의 각성과 통회 및 자복을 통한 회개운동이 시작되었다. 1907년 대부흥회는 순간적인 회개가 아닌 진정한 회개를 함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삶이 새롭게 바뀌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 죄를 인식하고 개인적인 회개와 공개적인 죄 고백을 통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삶의 변화가 있었다. 심지어 죄의 공개적인 고백과 더불어 보상 또는 배상하는 행위로 이어졌다.<sup>53)</sup> 이것은 영적, 지적, 윤리적 갱신이었다.

넷째, 죄의 각성과 윤리의식의 형성으로 세 가지 영역에서의 화해와 변화가 일어났다. 먼저 세습 신분제 폐지에 대한 변화가 왔다.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양반과 상놈의 구별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여성에 대한 성차별도 개선의 움직임이 있었다. 부부가 같이 식사하지 않고 아내는 별도의 밥상에서 식사하는 폐단이 고쳐지게 되었고, 여성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sup>54)</sup> 끝으로, 한국 신자들과 외국 선교사들 사이의 이해가 증진되었고, 화해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sup>55)</sup> 한국인들과 서양 선교사들 사이에는 배경과 사고방식과 견해 차이 때문에 서로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백낙준은 “선교사들은 일반적으로 한국인에게 우월적인 자세로 대하였고 자기들은 한국인들과 구별된다고 자처하였다”<sup>56)</sup>고 지적한다. 부흥의 불길을 통하여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 내렸다. 한 선교사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말을 하였다.

금년까지 [1907년] 나는 동양은 동양이고 서양은 서양이므로 양자 사이에는 어떤 유사성이나 공통점이 없다는 경시하는 시각으로 다소 경계를 두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한국인들은 서양인들이 갖는 종교적 체험을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이번 부흥은 두 가지를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하나는 피상적으로 서양과 정반대인 것이 천 가지가 될지라도, 한국인들이 마음에 있어서와 모든 근본적인 것에 있어서 서양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것이다...이번 부흥이 나에게 가르쳐준 두 번째 것은, 전 생활을

53) 위의 책, 135-138.

54) Sung-Deuk Oak, “Crossroads of Korean Christianity: Revisiting Its Great Revival Movement, 1903-08,” <International Symposium on Korean Christianity> Los Angeles: UCLA Center for Korean Studies (October 21, 2004), 5.

55) 『한국기독교의 역사』 I, 273; 김광수, 『기독교 성장사』, 165.

56) Paik,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 in Korea 1832-1910*, 362.

신앙화하는데 있어서, 기도와 단순함과 어린아이 같은 신뢰는 동양이 서양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많은 것일 뿐만 아니라 심오한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배우기 전에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sup>57)</sup>

이 부흥은 한국인 신자들과 선교사들 사이의 가까운 친분과 일치를 가져다주었다.

다섯째, 기도 운동이 시작되었다. 위태롭고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 1907년 대부흥회를 통해 한국교회의 전통인 새벽기도가 길선주 목사에 의해 널리 퍼지게 되었고, 함께 기도하는 통성기도가 새롭게 발전하였으며, 밤늦게까지 진행된 집회 후 집에 가지 않고 새벽기도 때까지 밤새 기도하는 철야기도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토착화된 한국교회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았다.

여섯째, 부흥운동은 신앙의 실천을 정립하였다. 이 부흥은 성경공부와 기도회와 관련이 있다. 사경회 기간 동안 낮에는 성경을 배우고 오후에는 전도를 하고 저녁에는 부흥집회로 모였다. 결과적으로 성경공부와 전도와 기도의 열심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sup>58)</sup>

일곱째, 한국에서의 기독교의 기반이 견고하게 되었다. 이 부흥을 통하여 기독교의 순수한 신앙이 한국 기독교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한국교회는 성령의 강림과 죄의 참회와 미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하여 체험적인 이해를 하게 되었다.<sup>59)</sup>

여덟째, 이 부흥은 한국교회의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영적으로 거듭남을 체험케 하였다. 마켓에 의하면 “한국에서 개신교회의 성장은 그 당시 기독교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극적인 발전으로 1895년 서북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은 1907-1908년에 극치에 달했다. 한국 개신교 신자수는 1890년 2백명 정도에서 1905년 5만 명으로, 1909년 20만 명이상으로 도약

57) J. Z. Moore, “The Great Revival Year,” *The Korea Mission Field*, vol. 3-no. 8 (August 1907), 118, Paik,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 in Korea 1832-1910*, 53에서 재인용.

58) 『한국기독교의 역사』 I, 273.

59) 위의 책, 274.

하였고”<sup>60)</sup> 1960년에는 1백30만 명가량 되었다고 한다.<sup>61)</sup>

아홉째, 대부흥의 정신이 1909년 “백만구령운동”이라 불리는 대규모 기독교화 운동에서 재현되었다. 이 운동은 전국에 퍼져 1911년 초까지 계속되었다.

열째, 대부흥운동과 더불어 주일학교 운동과 YMCA운동이 함께 발전하게 되었다. 주일학교는 1905년 선교공의회 안에 주일학교 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유년주일학교 교육이 강화되었고, 『주일학교 공부』라는 교재도 편찬되었다. 교회가 없는 곳에는 주일학교가 먼저 세워지고, 주일학교를 통해 교회가 설립되기도 하였다. 주일학교는 1911년 초교파적인 전국 연합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세계주일학교연맹에 가입하게 되었다. YMCA는 질레트(P. L. Gillett)의 지도로 1903년 3월 한국에 창설된 이후 1907년 크게 발전하였다. 이상재, 윤치호 등 민족지도자들이 개종하여 YMCA 지도원이 되었고, 기독교 청년 개종운동과 더불어 사회계몽과 봉사에 진력하였다.<sup>62)</sup>

끝으로 대부흥운동은 선교라는 결실을 맺었다. 1907년 대부흥이 일어난 해에 장로교회 독노회가 조직이 되었고, 평양 장로회신학교 제1회 졸업생 7명이 배출되었다. 졸업생 가운데 절반이 선교사로 파송되었다.<sup>63)</sup>

<표1> 1905년과 1907년의 한국교회 성장 비교<sup>64)</sup>

년도	교회수	전도소	세례교인	학습교인	현금(원)
1905	321	470	9,761	30,136	1,352,867
1907	642	1,045	18,964	99,300	5,319,785
증가율(%)	200	222.3	194.2	329.5	393.2

60) Moffett, “Missions to Korea: A Brief Summary,” 41.

61) 위의 책, 50.

62) 이장식, 『한국교회의 어제와 오늘』, 185-187.

63) 이광순, 『한국교회의 성장과 저성장』, 65-66.

64) U. G. Underwood, *The Call of Korea*, (Fleming H. Revell, 1908), 146-148,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1982), 263과 『한국기독교의 역사』 I, 275에서 재인용.



## VI. 부흥의 부정적 결과

1907년 대부흥운동이 1909년에 시작된 백만 구령운동으로 재현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퇴조하게 되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개인의 회개와 회심 그리고 영혼구원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사회전체의 공감을 일으킬 동기부여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공부를 하는 사경회는 비참한 현실로부터의 도피처 구실을 했다. 나라를 잃었는데도 영혼구원에 전력하도록 함으로 대부흥운동의 지속과 확대에 지장을 주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의 평화와 안락만을 추구하는 개인적인 신앙으로 바뀌어 나라와 사회 전체의 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했다.

대부흥운동의 문제점은 정치 권위에 대한 교회 지도자들의 중립적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민족과 나라의 위기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모색되었던 기독교에의 입교가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지만, 교회 지도자들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태도는 사회와 국가에서의 교회의 역할의 축소내지는 약화라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그 당시 나라와 민족의 위기에 직면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여 교인이 되는 소위 정치적 입교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기독교를 통해 무너져 가는 나라와 민족을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독교의 믿음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선교사들의 관심은 한국의 독립이나 정치적 안정이 아니라 정치적 충돌 없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다. 기독교가 정치의 도구화가 되는 것을 경계하였던 것이다. 이런 상충된 생각으로 민족주의 교인들과 선교사들 사이에는 갈등과 반감이 생기게 되었고,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의 지도에 따라 비정치적인 양상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1900년대의 선교사들은 선교의 방향을 국가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영적 차원으로, 불의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권위주의의 복종으로 그 방향을 바꾸었다. 이것은 교회의 비정치화라는 것이었다. 이것을 위해 영적 훈련과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매우 강조하였다. 1900년대의 선교사들은 교회 안에서 정치 발언을 허용하지 않았고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가르

쳤다. 그들은 정치에 관여되어 있는 한국인 목사나 신자들을 불신했다.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이 일본정부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이 일본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1907년의 대부흥은 한국교회의 정치적 관심을 최소화하였다.

비록 1907년 대부흥이 많은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을지라도, 교회가 사회에서의 책임과 사명을 망각했다는 비난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교회가 사회적 관심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차원의 강조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영적 소망을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희망을 주는 데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교회의 사명은 영적인 차원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까지 확대해야 하는 것이다. 개인의 영적 성장과 교회의 내적 성장만을 강조하고 사회적 책임을 분리시키게 되면, 결국 교회가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사회로부터 외면당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사실 선교사들은 “한민족교회” 조직 계획을 갖고 있었다. 장로교 선교사들은 첫 신학교 학생들이 졸업하는 1907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를 조직할 계획이었다. 이것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한 희망이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교회에서 민족주의의 자각과 애국적 행동이 명백히 위험하다고 간주하여 이 계획을 연기시켜 버렸다.<sup>65)</sup> 이 부흥 이후, 더 이상 “한민족교회”라는 말의 언급이 없었다. 오히려 교단교회가 형성되었다.<sup>66)</sup> 민족교회 계획이 중단되자, 한국 기독교인들은 선교사들에 대해 반감을 갖게 되었다. 이 일로 몇 교회는 문을 닫아 버렸고, 일부 기독교인들은 교회와의 관계를 단절했다.

1910년 한국은 일본에 합병되었다. 한국교회는 정치적 발언을 삼가했고, 선교사들의 침묵 요구로 교회의 내적 일에만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런 전통이 아직도 한국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65)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1982), 257-58.

66) 민경배, 『한국민족교회 형성사』(1974), 46.

## VII. 나가는 말

1900년대 초기에 한국인들은 국가의 불운과 일본의 정치적 간섭을 겪었다. 특히 청일전쟁(1894-1895)과 러일전쟁(1904-1905)을 겪어야 했다. 그들은 또한 국가 상황의 변화를 겪어야 했다. 이런 이유들로 그들은 위기감과 정치적 상황의 불안을 느껴야 했다.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불안이 지배적일 때 사람들은 심리적 안정과 평안을 찾기 위해 종교에 의지하게 된다. 1907년의 대부흥이 그렇다. 그때는 민족의 수난과 나라의 위기라는 문제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내면적 신앙을 갖게 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전한 복음주의 시대였다.<sup>67)</sup>

1907년의 대부흥은 1903년 원산에서 열린 선교사들의 기도회가 그 시작이었다. 그 후 1904년 1월 원산에서 다시 개최된 교파별 연합기도회가 원산지역 부흥운동을 야기하였다. 그러다가 1905년 8월 평양에서 재개된 부흥회 열기가 전국으로 퍼지게 되었다. 마침내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대부흥운동의 불길이 점화되었다. 평양의 부흥회가 전국부흥운동으로 알려져 중국에까지 부흥회 열기가 알려지게 되었다. 1907년 대부흥은 민족의 계몽과 나라의 개화를 위해 각성하였고, 개인의 반성과 회개가 중요한 결과였다.

대부흥운동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에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윤리적 삶의 개선이나 교회의 부흥에 기여하게 하였고,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sup>68)</sup> 그러나 개인구원의 강조는 독단주의에 빠질 위험성을 내포하였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강조는 성령의

67) 건전한 복음주의는 수직적 내면적 신앙과 사회적 행동이라는 양면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웨슬리는 신앙의 본질은 내면적이지만 신앙의 증거는 사회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성화 없는 내면적 성화를 모른다고 강조했다. 김흥기, “1907년 대부흥의 역사적 의의,” 『목회와 신학』 통권 108호 (1998. 6): 68-69.

68) 1907년 6월 평양 장로회신학교는 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목사 안수 후 7명 모두는 목회자로 선교사로 사역을 하였다. Hee Kuk Lim, “The Significance of the Great Revival of Pyeng Yang in 1907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Church History,” <International Symposium on Korean Christianity> Los Angeles: UCLA Center for Korean Studies (October 21, 2004), 25.

은사에 대한 다양성보다는 성령의 독점화라는 부정적인 면을 보였다.

현재 한국교회에는 1907년 대부흥을 통해 나타난 개인 신앙 중심의 모습이 퍼져있다. 이것은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영역에 있어 범교회적 또는 범교단적인 대처에 미흡한 면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교회가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 양보하거나 희생하는 모습보다 때로는 집단이기주의를 보여주고 있어 사회에서 존경심을 잃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마저 도덕적 해이에 빠져 사회의 지탄을 받기도 한다. 이런 점들이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막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성장 둔화, 정체 또는 침체의 위기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1907년도 대부흥 때처럼 죄의식을 갖고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며 스스로 갱신하여야 한다. 그리고 바른 윤리의식과 실천하는 신앙으로 사회에서 봉사하고 사회의 본이 되어 바른 가치관을 제공할 때 비로소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을 것이고, 정체된 한국교회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교회가 바로 서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사회의 정책, 제도, 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1907년의 대부흥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사람이 어떤 의도나 계획을 갖고 있었을지라도,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성령은 우리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역하였다는 것이다. 민경배교수의 “우리 현대 교회의 위대한 성취의 근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도구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있다”<sup>69)</sup>라는 평가는 옳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인본주의적 또는 흥미위주의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보다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겸손한 자세로 봉사하는 일에 말없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69) Min,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n History,” 26.

## 참고문헌

Clark, Allen D. *A History of the Church in Korea*. Seoul, Korea: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71.

Draper, Edythe. ed. *The Almanac of the Christian World*. Wheaton, IL: Tyndale House Publishers, Inc, 1990.

Kerr, David A. "영국 웨일즈 지역 신앙각성운동." 『20세기 개신교 신앙부흥과 평양 대각성운동』 <제5회 국제학술대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5년 5월25일.

Lim, Hee Kuk. "The Significance of the Great Revival of Pyeng Yang in 1907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Church History." <International Symposium on Korean Christianity>. Los Angeles: UCLA Center for Korean Studies (October 21, 2004), 15-26.

Min, Kyung Bae.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n History." In *Korean American Ministry*. ed. Sang Hyun Lee. Princeton, NJ: The Consulting Committee on Korean American Ministry, The Program Agency, Presbyterian Church (U.S.A.), 1987, 15-27.

Moffett, Samuel Hugh. *The Christians of Korea*. New York: Friendship Press, 1962.

\_\_\_\_\_. "Missions to Korea: A Brief Summary." In *Korean American Ministry*. ed. Sang Hyun Lee. Princeton, NJ: The Consulting Committee on Korean American Ministry, The Program Agency, Presbyterian Church (U.S.A.), 1987, 38-47.

Oak, Sung-Deuk. "Crossroads of Korean Christianity: Revisiting Its Great Revival Movement. 1903-08." <International Symposium on Korean Christianity>. Los Angeles: UCLA Center for Korean Studies (October 21, 2004), 1-13.

Paik, L. George.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 in Korea 1832-1910*. Pyeng Yang, Korea: Union Christian College Press. 1929.

Shearer, Roy E. *Wildfire: Church Growth in Korea*.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6.

Wasson. Alfred W. *Church Growth in Korea*. New York: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1934.

김광수. 『기독교 성장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6, 159-69.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의의 역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4.

\_\_\_\_\_. “미국교회 대각성운동과 한국교회의 1907년 대부흥운동의 비교 연구--유사점과 상이점을 중심으로.” 『20세기 개신교 신앙부흥과 평양 대각성운동』 <제5회 국제학술대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5년 5월25일.

김창환. “20세기 초반 영국령 인도의 신앙각성운동: ‘은혜의 소나기’: 21세기 초 인도 카시아 고원과 묵티 선교회의 부흥운동.” 『20세기 개신교 신앙부흥과 평양 대각성운동』 <제5회 국제학술대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5년 5월26일.

김홍기. “1907년 대부흥의 역사적 의의.” 『목회와 신학』 통권 108 (1998. 6): 65-70.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2.

\_\_\_\_\_.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_\_\_\_\_. 『한국민족교회 형성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4.

\_\_\_\_\_. 『한국기독교회사』 개정판.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민중사 간. 『역사와 기독교: 한국민족 통일 운동의 현실』 vol. 8. 서울: 기독교정의발전연구소, 1984.

박순경. 『민족통일과 기독교』. 서울: 한길사, 1986.

박용규. 『평양 대부흥운동』.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오성춘.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의의에 관한 연구를 논찬함.” <제2회 소망신학포럼>.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5년 4월20일, 1-6.

육성득. “1906-1909년 아주사(LA) 부흥 운동: 그 특성과 한국 대부흥운동과의 비교.” 『20세기 개신교 신앙부흥과 평양 대각성운동』. <제5회 국제학술대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5년 5월26일.

이광순. 『한국교회의 성장과 저성장』. 서울: 미션아카데미, 2005.

이덕주. 『한국 토착교회 형성사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0.

- 이장식. 『한국교회의 어제와 오늘』.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7.
- \_\_\_\_\_. “한국 정치현실과 교회.” 『교회와 국가』.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편. 서울: 한기문 출판사, 1988, 247-76.
- 이종성. “선교 100주년과 한국교회.” 『행동하는 크리스찬』 (1984년 가을호): 2-5.
- 임희국. “신앙각성운동을 통한 갱신과 부흥. 토착 교회의 형성--1907년 평양 대각성운동을 중심으로” <제2회 소망신학포럼>.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5년 4월20일, 5-28.
- 한국기독교사연구회 편. 『한국 기독교의 역사』 I. 서울: 기독교문사, 1989.

## ABSTRACT

# The Influence of the Great Revival of 1907 in the Korean Church

The Korean nation came to a crisis under the influence of the Sino-Japanese War from 1894 to 1895. In addition, the Korean people were seized with a sense of crisis under the influence of the Russo-Japanese war from 1904 to 1905. Through the two wars, the Korean people had experienced national crisis and Japanese interference. Political and social unrest encouraged people to turn to God for answers. The national turmoil leading up to the 1907 Great Revival was a major cause.

The revival movement in Korea began in 1903 and the Great Revival of 1907 in Pyongyang was the peak. One cause of it was originating in missionary prayer meetings and Bible study.

There were many positive results of the Revival. First, the revival gave a light of new hope to the poor and unstable society. Second, it provided improvement in morality. Third, repentance movement was begun through the awakening of sins and contrition. Fourth, the tendency for reconciliation was formed. Fifth, prayer movement was begun. Sixth, the revival movement established religious practice. Seventh, Christianity secured a base in Korea. Eighth, the revival brought quantitative growth to the Korean Christian and the spiritual rebirth of the Korean church. Ninth, the spirit of the great revival was revived during the large-scale Christianized movement in 1909, the so



called "A Million Souls for Christ Movement." Tenth, Sunday school movement was developed with YMCA movement. Eleventh, the Great Revival bore fruits of mission.

Missionaries of the 1900s changed the direction of mission from national concern to spiritual dimensions, and from being against injustice to obeying authority. Their neutral attitude toward the political authority brought "dehistorical" and "depoliticization" aspects in the Korean church. Although the Korean church grew in numbers, it minimized its social concerns and forgot its prophetic role in society.

One of the important lessons is that although people had a certain intention or plan, the Holy Spirit worked in different ways through those events.

**Key Word:** Korean church, Great Revival, dipoliticization